

23 성찬식

Chapter

고전 10:16~17, 고전 11:23~30

찬송가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양 125장 (주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오늘 배울



말씀

1. 성찬식의 의미를 압니다.
2.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할 것을 결심합니다.

마음 열기

성찬식에 사용되는 떡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1. 우리 교회에서 사용되는 떡을 만드는 법

준비물 : 멥쌀가루 한 컵, 찹쌀가루 한 컵, 물 약간, 소금 약간

- 1) 멥쌀가루와 찹쌀가루를 섞어서 채로 곱게 내린 후 약간의 소금을 넣습니다.
- 2) 물을 여러 번에 나누어 흠뻑려 섞어서 가루를 보슬보슬하게 만듭니다.
- 3) 떡 시루에 베 보자기를 깔고 준비한 분량의 쌀가루를 콩고루 올립니다.
- 4) 떡시루 아래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그 위에 떡시루를 올린 후 중불보다 약간 높은 불 세기로 35분~40분 정도 찍니다.



2. 외국에서 사용되는 빵을 만드는 법

준비물 : 밀가루 한 컵, 물 네 스푼(혹은 우유 네 스푼), 소금 약간

- 1) 재료 모두를 잘 섞은 후 롤러로 잘 밀어서 피자 도우처럼 얇은 빵을 만듭니다.
- 2)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빵 표면에 작은 구멍을 냅니다.
- 3) 오븐에 넣고 175~180도에서 10분 정도 잘 구워 냅니다. 혹은 프라이팬을 이용해서 빵이 바삭해질 때까지 잘 굽습니다.



만든 빵과 포도 주스로 교회 학교 분반 시간에 성찬식을 경험해 봅시다.



말씀을 이해하기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예식이 바로 침례와 성찬입니다. 그 중 성찬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에게 전해 주신 것으로써 성도들이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으로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 때 예수님께서 나 대신 살이 찢기심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기념하고, 붉은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사실을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행하는 첫째 목적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 인생을 예수님 중심으로 살 것을 결심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성도 모두가 한 떡을 떼므로써 성도는 이 땅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사랑하며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밀알이 떡이 되기 위하여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 안에서 연합함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파할 것을 각오하고 결심하기 위함입니다.

성찬 예식은 이처럼 중요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형식적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먼저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떡을 먹고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성찬에 앞서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혹시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버리며, 주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심하는 가운데 성찬식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과말씀정리

말씀을 마음 판에 새기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음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전11:26)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till He comes (1 Co 11:26)



말씀을 더 깊게 묵상하기

1. 다음 범위의 성경을 읽고 묵상한 후 제목을 붙이거나 내용을 요약해 보세요.
혹은 느낀 점을 쓰거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되는 절을 자유롭게 적어 보세요.

(마 26:26~28)

(시 22:14~19)

(사 53:5~6)



말씀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1.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는 성찬식에 임할 때 합당치 않게 행함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고전 11:28~3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찬식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행해야 할까요?
2. 성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어 먹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전 10:16~17절을 읽고 정리해 봅시다.
3. 성찬식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복음을 전할 것을 결심하기 위함입니다. 올 여름 하계수양회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 봅시다.
4. 사람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잊고 삽니다. 그러나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구원의 은혜도 그 중 하나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성찬식이라는 예식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개인적으로 결심하거나 행한 일, 혹은 나만의 기념 방법이 있다면 적어 봅시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약 2:26)

1. 오늘 배운 말씀을 이번 주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적어 보세요.

하나.

둘.

셋.

2. 지난 주에 적용하기로 한 내용을 돌아보고 평가를 적어 보세요.



말씀대로 살도록 기도하기

우리의 삶이 주님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을 항상 앞에 두는 삶, 주님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잃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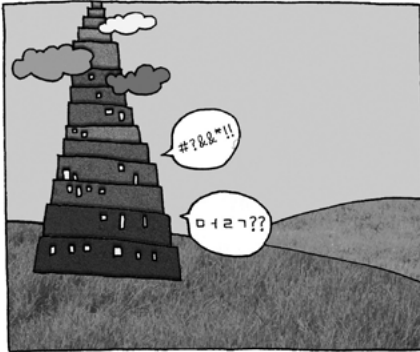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보내실 때 그들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노아 시대 때에는 심판을 하셨지만 방주라는 피할 도구를 주셨어요.



하지만 바벨탑 시대에는 용서가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을 흩어 버리셨어요.



왜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집나간 자식이 돌아오면 용서해준다는 부모님의 광고를 보고도 돌아가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 잘못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면 용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네 허물을 뵈뵈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 44:22)

은혜를 갚은 소다 가이치

소다 가이치는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는 유일한 일본인이며, 또한 한국 정부로부터 처음으로 문화훈장을 받은 일본인이기도 합니다. 그가 한일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기도 전에 이렇게 한국인들로부터 특별한 대우를 받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다와 그의 부인이 한국 고아들을 위해서 삶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의 젊은 시절은 홍콩에서 대만을 거치는 방황과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쑨원의 혁명운동에도 가담하였고 산악 지대를 방랑하다가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이렇게 방황하던 소다가 어느 날 술에 만취된 채 노상에서 쓰러져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때 무명의 한국인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를 업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를 해주고 밥값도 내어 주었습니다.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한국 사람 덕분에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6년 뒤인 1905년, 소다는 은인의 나라인 한국에 은혜를 갚으리라 결심하고 서울 YMCA 일본어 선생으로 취직하였습니다.

소다는 이 무렵, 수감 중 예수님을 믿게 된 이상재 선생에게 큰 감화를 받아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는 41세 때 독실한 신앙인인 30세의 우에노 다키와 결혼합니다. 그러다가 105인 사건이 일어나자 그는 이 사건을 조작했던 데라우치 총독과 일본인 경성기독교회 장로인 대법원장 와다나베를 찾아가 “죄 없는 조선 사람을 즉시 석방하라”고 항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일로 소다는 일본인 사회에서 배신자란 말을, 조선인으로부터는 스파이라는 말을 듣기도 했으나, 변함없이 조선인과 조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일본 교계에 알려져 중구 회현동에 일본인 감리교회가 설립되었고, 그는 여기서 무보수 전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1921년 소다 가이치 부부는 고아 사업 기관인 일본 가마쿠라 본부로부터 경성 지부 책임자로 임명받습니다. 이들은 가마쿠라 보육원에서 조선인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정성껏 돌보았는데 1921년부터 45년까지 소다 부부가 돌본 고아들은 무려 천 명 이상이었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이들이 겪은 고생과 역경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버려진 아기를 업고 유모를 찾다가 구박을 당한 일, 소다의 고아원에서 자란 청년이 항일운동을 하다가 헌병대에 체포되어 소다가 취조를 당한 일, 위선자라고 비난 받은 일도 있었습니다.

고아원이 경제난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을 때, “소다 선생 내외 분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입니다. 우리나라 동포를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라는 익명의 편지와 거금 1천 원(현재 화폐로 약 1천만 원)이 마당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1943년, 그의 나이 77세 때에 그는 원산의 일본인 교회에 사역자가 없다는 말을 듣고 서울에서 고아원을 운영하는 부인과 떨어져 무보수 전도사로 원산에 가서 자취하며 목회를 하였습니다. 그 후 조선은 해방을 맞이하고 1947년 소다는 패망한 일본으로 귀국하여 “오 하나님, 일본이 범한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부인 우에노 여사가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서울에 남아 있다가 1950년 1월 74세로 한국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소다는 “그녀는 나 대신 한국 땅에 묻혔습니다.”라며 찬송과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부인의 장례식 이후에도 소다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 한 손에는 ‘세계평화’라는 표어를, 또 한 손에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조국 일본의 회개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4세 되던 1961년 한국으로 돌아온 소다는 영락 보린원에서 1년 동안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소다 가이치가 서울 YMCA 교사로, 원산교회 전도사로, 가마쿠라 보육원장으로 살며 수천 명의 고아들의 아버지가 되게 한 사람은 무명의 한 조선인 청년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Wednesday

수요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unday

주일말씀

Date. | |

제목 :

강사 :

본문 :

Handwriting practice area with horizontal dotted lines.